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담양군, 서울시 GMO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산지로 선정돼

내달부터 13개 자치구 80개 학교 Non-GMO 가공식품 22개 품목 공급



담양군이 서울시가 13개 자치구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Non-GMO(비유전자변형) 가공식품 공동구매 공급산지로 선정돼 오는 3월부터 서울시 80개 학교에 가공식품을 공급한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은 서울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13개 자치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

중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은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와 담양농협(조합장 박이환)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보장, 지속 공급 물량 확보, 서울시 학교별 배송체계 구축, 전통식품 공급을 통한 식생활 개선,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등을 서울시에 제안해 최종 선정됐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이 서울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의 공급 산지로 선정된 것은 담양의 친환경 농식품의 우수한 품질이 서울시민에게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러 "영산강의 시원지인 담양의 깨끗한 물과 청정한 자연을 연계한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전국 사이클 선수단 따뜻한 강진군서 전지훈련 비지땀



전국의 사이클 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강진을 찾았다.

10개 팀 138명의 선수단은 3월 9일까지 강진에 머물며 전지훈련과 3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3.1절 기념 도로 사이클 대회까지 마치고 돌아간다.

강진은 날씨가 따뜻하고 도로 여건과 주변 경관이 좋아 사이클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지훈련지로 손꼽힌다.

또 한국 사이클 대회의 시즌 첫 서막을 여는 3.1절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대회가 매년 강진에서 열리게 되는 것도 사이클 선수들이 강진을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훈련비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사업)으로부터 후원받는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진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다.

임성수 스포츠단장은 "요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사이클 선수들이 도로를 질주하며 훈련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이 안전하게 훈련할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많은 양보와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3.1절 기념 도로 사이클 대회는 2004년부터 매년 강진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단호박 특새작물로 경쟁력 키운다

고품질 단호박 재배기술 교육 성료



무안군은 지난 12일 승달문화회 송화관 소공연장에서 단호박재배농가 희망농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품질 단호박 재배기술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단호박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판단되며 확대재배를 통해 1읍면 1특색사업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단호박 재배기술을 육묘에서 수확, 저장, 출하까지 고 품질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강의와 진행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산 무안군수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정을 제시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업인월급제,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드론공급·양파기계화, 농작업대행 서비스 기구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보급, 1읍면 1특색 소득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

여수시, 18일부터 실시

여수시는 오는 18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찾으면 번호판을 떼어 내 보 관할 계획이다.

또 체납 1회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단속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진다.

여수=송기홍 기자

곡성군,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운영 눈길

농업인·생산자단체 등 의견 반영 농업소득향상 모색

곡성군은 과학영농 실천과 지역 특화작목 발전에 필요한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 교육 전반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로 9기째를 맞는 곡성명품농업대학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과과정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수요조사 결과 한우와 발효식품 2개 과정을 개설했다. 오는 22일까지 과정별로 신입생을 30명씩 모집해 11월 말까지 교육을 운영한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와 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등 농업 관련 단체에게는 품목별로 단기교육을 추진해 작목별 전문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

히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등 수요자들의 요구와 수준을 감안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이나 신기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교육과 컨설팅도 병행한다.

한편 군은 기초영농기술교육 과정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지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농업인 1,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영농설계와 농정변화시책을 전파하기도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여겠다"며 농업인 교육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곡성=김영희 기자

영암 왕인문화축제 4월 4~7일 개최



6개 부문 82종 프로그램 진행

영암군은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 역사공원, 도기박물관 일원 등에서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연다고 12일 밝혔다.

왕인의 빛, 소풍·상생의 길을 열다'란 주제로 열리는 왕인문화축제는 6개 부문 82종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표행사이자 축제의 '메가 퍼레이드'인 왕인박사 일본 가오'를 비

리 동네 문화사 페스티벌' 등 29종, 놀이체험행사는 '어린이 왕인스쿨' 등 25종, 연계행사는 '구립벚꽃길 걷기대회' 등 6종, 부대행사는 '벚꽃로드 낭만열차투어' 등 16종이 함께 열린다.

군은 최근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올 행사와 관련, 영암의 전통문화 보존계승과 지역민 주도형 축제문화를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또 축제장 전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세대별 관광객을 위한 프로

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콘텐츠도 확대해 올해를 왕인문화축제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고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5년 연속 '유망축제'를 뛰어넘어 '우수축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등 외국인 대상 광범위한 홍보에 나서고, 여행사들과 연계해 1박2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전통의상체험, 세계민속공연, 외국인 음식점 운영 등 외국인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왕인박사가 일본에 건너가 상륙했던 곳인 간자키시 등과 협력을 통해 일본 관광객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전동영 군수는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인물축제로는 전국 최고의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올 해부터는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를 위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